

Q3

산불은 어떤 방법으로 진화하나요?

A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진화헬기와 지자체 임차헬기가 즉시 출동하고, 지역 산불 예방진화대가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진화를 시작합니다. 진화헬기는 총 150대 (산림청 48대, 지자체임차 72대, 소방 30대)이고 9천6백여 명의 산불예방진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일반화재와는 진화환경 및 장비에 다소 차이가 있어 산림청 소속의 산불진화대가 산림 진화 및 잔불, 뒷불 정리를 담당하고, 소방에서는 주택, 민가 등 시설물 보호와 인명구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불확산이 우려될 경우 진화헬기를 추가 투입하고, 소방청과 국방부에 헬기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광역단위로 운영하는 공중·특수진화대를 즉시 투입합니다. 공중진화대는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의 종류와 역할

구분	산불특수진화대(공무직,기간제)	산불예방진화대(기간제)	공중진화대(공무원)
운영규모 (‘24년 기준)	435명 (1개대 당 12명 내외)	9,604명	104명 (1개대 당 4~5명)
운영주체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지자체	산림항공관리소
운영기간	연중	6개월	연중(공무원)
주요대상	난이도가 높은 산림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역 우선 투입]	평이한 산림 [일반 산불진화 투입]	암석지, 고산지 등 [헬기인명 구조]
기타사항	인접 사군 주민으로 산불진화에 전문으로 투입됨(평균 41세)	지역 주민으로 산불 예방과 진화활동에만 투입됨 (평균 61세)	특수진화대 훈련 및 공동투입과 인명구조 활동

※ 출처 : 산불방지와 예방